

종합

■ 김정일 영결식... 中 단둥 북한주민 표정

“생전 영상 보자” 고려식당 조문행렬

단둥=윤현식 기자

어두컴컴한 28일 새벽 5시30분, 조명이 설치된 북한 신의주 주체탑과 김일성 동상 주변에서 통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난 17일부터 계속된 '24시간 조문'의 마지막을 예고하듯 몇 차례 반복된 통곡은 곧 멎었고, 오전 7시부터는 북한 전역이 영결식 준비에 들어간 듯 했다.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1km 남짓 거리에 자리한 중국 라오닝(遼寧)성 단둥(丹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을 앞두고 이날 오전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미국 등 전세계의 언론들은 북한의 선양(瀋陽)영상관 단둥 지부가 설치돼있는 류경식당으로 몰려들었다.

중국 공안들이 건물 입구를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 북한 주재원, 지도원, 조선족, 북한 화교 등만이 국화 꽃다발을 들고 단둥지부에 설치된 분향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27일만 해도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으나, 북한 측의 요청으로 경계가 삼엄해진 탓이다.

21층에 있는 분향소 입구에서는 북한 지도원들이 소속과 주소, 성명 등을 일일이 점검했고, 분향소 중앙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정을 세워놓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다. 국화로 장식된 화환이 즐비해 선 분향소 주변을 서성이며 흐느끼는 북한 주민도 볼 수 있었다.

북한 주재원 등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거의 매일 분향소를 찾았다고 있었다. 영결식이 있는 이날 단둥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수백명이 새벽바람을 맞으며 분향소를 찾았고, 그 맞은 편에 있는 평양고려식당에는 김정일 생전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 분향을 마친 관계자들이 영결식 시간까지 이곳에서 대기했다.

김일성 배지를 단 북한 고위 지도원으로 보이는 50대 남자는 “상심이 커서 이부 말할 수가 없다”며 “영결식이 끝나더라도 분향소를 유지해 조문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실정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따가 이야기하자”며 담배를 서둘러 끄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분향소나 고려식당을 찾은 북한 주민들은 “따라오지 마시오”,



28일 오전 10시께 중국 라오닝성 단둥의 평양고려식당에 북한 주재원들이 김정일 생전 영상을 보기 위해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 이날 식당안에서는 통곡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민 수백명 새벽바람 맞으며 분향소 찾아

류경식당 쓰레기장 버려진 국화 언덕 이뤄

‘24시간 조문’ 등 폐쇄사회 강제 충성 해석도

“할 말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한 화교 출신으로 거의 매일 분향소에 들렀다는 손모(51)씨는 “대부분 주재원 등 북한 주민이나 북한과 교역을 통해 생계를 잇고 있는 화교들이 몇 번 분향했다는 북한 보위부가 모두 체포하고 있다”라며 “나중에 증명서 발급 등 사안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비싼 국화 사서 나르는데”이라고 토로했다.

류경식당 한 쪽 쓰레기장에는 버려진 국화들이 작은 언덕을 만들 만큼 쌓여있었으며, 단둥과 선양 등 중국 동북부의 국화는 동이 났다. 17일 이후 단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트럭과 승합차의 대부분의 국화와 장례용품이었다는 것이 현지 사람들의 말이다.

김정일 사망과 장례일정으로 인

해 잠시 소강상태에 있었던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지난 26일부터 서서히 재개되고 있다.

27일에는 신형 트럭 수십대와 건설장비가, 28일에는 쌀과 옥수수 등 식량 1500여t을 실은 열차가 각각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를 지나 신의주로 들어갔다. 폐쇄됐던 북한의 시장도 28일일부터 다시 재개되고, 단둥 내 문을 닫았던 북한 식당과 상점은 30일 오후 늦어도 31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지난 2005년부터 단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47)씨는 “중국과의 교역, 외화벌이, 주민들의 생계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북한의 입장에서 하루라도 서둘러 김정일 사망 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라며 “24시간 조문이나 매일 분향소 참배, 오열하는 북한

주민 등은 폐쇄된 사회에서 강제된 충성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chadol@kwangju.co.kr

▲단둥(丹東)=북한 신의주와 중국 경계를 이루는 라오닝성의 주요 도시로, 전체 인구는 250만명, 도심 내 인구는 6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북한 주재원, 지도원, 북한 화교 등은 물론 SK 등 한국 기업체 직원, 조선족 등이 도심 내에만 1만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과의 교역을 통해 성장한 도시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절단된 압록강단교 등에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중국 휴대전화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있다. 평양에서 20km 거리에 있는 용천까지 통화가 가능하며, 오랜 기간 탈북 통로로 알려지던 중국 공안의 단속도 중국 다른 지역에 비해 극심한 편이다.

김정일 영결식 생중계 이례적

김정은 영구차 호위 뜻밖... 거리행진 같아

■ 김일성 영결식과 다른 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과 노제가 28일 오후 9시 내린 가운데 금수산기념궁전과 평양 시내에서 진행됐다. 절대권력자 김 위원장이 마지막 가는 길은 전반적으로 아버지 김정일 주석의 영결식과 비슷해 보였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적지않게 눈에 띄었다.

일단 이날 영결식이 시작된 오후 2시께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세계 곳곳에 생중계했다는 점이 가장 이례적인 것으로 꼽힌다.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공식 데뷔한 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따라다니며 ‘황태자 수업’을 했다.

그러나 통치수업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난 독자적인 활동이 공개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품속 행보’만 해왔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김정은 체제의 안착 가능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조기에 안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더 실린다.

북한 매체들은 김 부위원장을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할 것임을 사실상 예고했고, 겉으로 보기엔 당과 군부에 대한 장악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앞에 놓인 난관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우선 김 부위원장의 카리스마나 정책적 능력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권력 엘리트와 주민을 상대로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김 부위원장은 북한 권력 엘리트 사이에 인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부위원장은 후계수업 기간이 3년도 채 안되는 점을 들어 경험 부족도 지적받는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혈족인 고모 김경희 당 경제부장과 그의 남편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국방위 부위원장)에 상당 부분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김 부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성택 부부의 성명제까지 본격화할 개연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런 대내외적 약조건을 고려해 당분간 자신의 색깔이 담긴 새로운 정책보다 부친의 위업을 계승한다는 이른바 ‘유운통치’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여사는 김정일 부위원장이 조문을 오지 못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인사를 전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날 오전 권 여사와 통화 통화를 했다.

이 여사는 27일 전화로 류호보 장관과 만찬을 갖고 방북 과정을 설명했다. /이종해기자 gilee@kwangju.co.kr

로 생중계한 것은 세계인들의 ‘시선과 관심’을 의식한 조치로도 보이지만,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조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결식이 김 주석 때보다 4시간 늦게 시작된 것도 예상밖이었다. 이날 평양에 적지않은 눈이 내려 제설작업 때문에 일정이 지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영결식에서 고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영구차를 호위하며 식장에 들어선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다.

그는 리영호, 장성택, 김영춘, 김경각 등 북한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와 함께 김 위원장의 영구차를 양쪽에서 손으로 붙잡은 채 호위하며 도보로 식장에 들어섰다.

김 주석 영결식 때는 김 위원장이 고위간부들과 함께 김 주석의 영구

(靈柩)를 한 바퀴 돌며 마지막으 애도를 표했다.

24일의 조총·조포를 썼던 김 주석 때와 달리 예총·예포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노제를 겸한 거리행진은 운구행렬 구성이나 행진구간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김 주석 때와 대동소이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나선 김 위원장 영구차는 평양의 보통강변을 따라 금성거리-영흥네거리-비파거리-혁신거리-전승광장-영웅거리-천리마거리-충성거리-거탑거리-낙랑다리-청년거리 등을 거쳐 김일성광장으로 향했다. 이는 1994년 때와 동일한 경로다.

김 위원장의 대형 영정을 실은 차 뒤로 김 부위원장의 화환, 김 위원장의 영구를 실은 대형 리무진, 장의위원 등이 뒤를 따르는 운구행렬 역시 부친 영결식 때와 거의 같았다. /연합뉴스

짧은 ‘후계수업’ 경험부족 험로 예고

■ ‘홀로서기’ 시범대北 김정은 미래는

북한의 새 지도자에 오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떠나보낸 뒤 통치자로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까.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공식 데뷔한 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따라다니며 ‘황태자 수업’을 했다.

그러나 통치수업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난 독자적인 활동이 공개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품속 행보’만 해왔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김정은 체제의 안착 가능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조기에 안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더 실린다.

후계자 준비를 한 데 비해 김 부위원장은 후계수업 기간이 3년도 채 안되는 점을 들어 경험 부족도 지적받는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혈족인 고모 김경희 당 경제부장과 그의 남편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국방위 부위원장)에 상당 부분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김 부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성택 부부의 성명제까지 본격화할 개연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런 대내외적 약조건을 고려해 당분간 자신의 색깔이 담긴 새로운 정책보다 부친의 위업을 계승한다는 이른바 ‘유운통치’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김영남 “김정은 6·15, 10·4선언 이행 의지”

방북 이희호 여사에 밝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통합당 박지연 전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철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이희호 여사가 27일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면담에서 6·15, 10·4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일을 김정일 위원장이 다 이루고 간 일인데 김정은 대장동지가 여기에 인민은 듣습니다. 최고영도자인 김정은 대장동지는 비범한 품모로 김정은을 충직히 받들고 김정일 장군의 위업을 완성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여사와 김영남 위원장의 면담은 방북 전날인 25일 결정됐지만 북측이

보안을 요구해 일정을 비공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6·15, 10·4 선언을 반드시 이행해 남북 국민이 교류하고 왕래할 수 있는 기호가 오기를 바란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이 여사는 김영남 부위원장이 조문을 오지 못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인사를 전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날 오전 권 여사와 통화 통화를 했다. 이 여사는 27일 전화로 류호보 장관과 만찬을 갖고 방북 과정을 설명했다. /이종해기자 gile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4개>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entrie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빌라.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entrie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빌라.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본지법정 유치권자등에게 우선권이 있는 최고가매수인자가 매각물건에 대한 매각을 포기할 때까지 매각물건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매각물건의 용도에 관계없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매각물건의 용도에 관계없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매각물건의 용도에 관계없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5. 매각물건의 용도에 관계없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6. 매각물건의 용도에 관계없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7. 소유권이 전할 일도
8. 주의사항
9. 기타